

1970년대 페미니즘 이론의 번역/실천과 여성학

김영선*

차례

1. 1970년대 학술지형과 번역
2. 서구 페미니즘 이론의 수용과 한국 여성문제
 - 2.1. 크리스찬 아카데미(와/의) 『여성문화의 도전』
 - 2.2. 이효재(와/의) 『여성해방의 이론과 현실』
 - 2.3. 이화여대 여성연구소(와/의) 『여성사회철학』
3. '1970년대성'과 그 이후
4. 지식의 탈식민지성과 번역/실천

<국문초록>

1970년대 한국여성학 제도화의 전사기(前史期), 누가 어디에서 누구와 어떠한 언어로써 한국여성문제를 구성하고 발신했는지를 살펴보는 작업은 한국여성학 학술운동의 계보적 탐색에 있어 필수적 과제이다. 이 논문은 '번역'이라는 행위자성이 어떻게 이 시기 당대 지식생산들의 이슈들과 여성문제들에 형식과 언어를 부여함으로써 그 시대정신의 일부가 되었는지, 그리고 소개된 번역 텍스트들은 1980년대와 90년대의 제도여성학의 구성 과정과 여성운동의 분화에 있어 어떠한 토대와 자원이 되었는지를 살펴본다. 여기에서 선택한 세 권이 핵심 텍스트는 '선집'이다. 전 10권의 '크리스찬 아카데미' 총서 중 제 7권으로 묶여 나온 『여성문화의 도전』(1975년)와 이효재가 엮은 『여성해방의 이론과 현실』(1979년) 및 이화여대 여성연구소의 『여성사회철학』(1979년)이다. 선집 간행에 참여한 공저자와 번역자들의 위치성과 전공 영역을 살펴봄으로써 학제간 연구로서의

* 성공회대 대우교수

체적을 구성해나간 초기 여성학 구성시기의 개별 전공의 구성 양태를 살펴보는 것과 동시에 제도와 담론이 중층적으로 얹혀있던 박정희 개발독재 시대, 한국의 현실을 파악하고 그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동원한 여러 학술 실천들 중에서 행위자로서 여성연구문제 연구자들이 번역 작업을 통해 어떠한 생산 효과를 도모했는지를 해석해 본다. 그 결과 1970년대는 어떠한 학술사적 의미와 역사성을 획득하게 되었는지, 한국여성학 제도와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했던 1세대 구성자이기도 한 그들의 초기 작업이 차후 어떠한 제도적, 이론적 경로의존성을 낳았는지, 여성학 지식의 ‘(탈)식민지성’을 둘러싼 세대와 계급이 교차된 1980년대의 비판에 어떻게 응답했는지 살펴본다.

핵심어 : 한국여성학, 학술제도시, 번역실천, 학제연구, 여성주의 지식생산, 탈식민지성

1. 1970년대 학술지형과 번역

학술사란 “분석의 대상이 되는 기간을 시간적 범주로 나누어 각 시기에 나온 연구물의 동향 및 학술적 성과를 정리하고 해석하는 방법”이다. 학술사의 두 번째 방법은 “세부 주제나 쟁점을 선정하여 그와 관련한 논의와 연구 성과를 정리하고 해석하는 것”이다.¹⁾ 분과학문 연구자들은 자기 학문의 역사‘들’을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등 주로 10년 단위로 나누어 선분 또는 점근선의 이미지로, 분화와 분기, 계보와 기원의 개념어를 경유하여 핵심 쟁점들을 추출한 후 층위와 차원을 교차하며 이들을 서로 연결하거나 단절시키며 좌표 위치를 부여하고 당대적·현재적 의미를 분석해왔다.

1970년대의 학술지형을 2016년 현재의 어떤 연구자가 특정 위치에서

1) 진승권, 「총론」, 한국문화연구원 편, 『한국사회학 50년』, 해안, 2004, 27면.

그러내며 동시에 그 지형을 구축하고 허물었던 역동과 변동을 분석하는 해석 작업은 결국 그 시대 축적된 결과물의 일부를 선택하여 유형화를 하고, 선택된 유형들 사이의 공통과 차이를 벌려 스펙트럼 위에 배열하는 것이며, 이러한 작업은 필연적으로 복잡성을 단순화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유형화의 순간과 동시에 사라지는 것들은 ‘주변’이나 ‘틈새’, ‘사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다루어져 왔다. 분석의 범주를 미시화하면 할수록, 또 시간대를 거슬러 올라가 초기 기원 근처를 더듬어보면 그 차이를 가르는 구분선은 명확하지 않으며 서로 겹쳐져 있고, 흐릿하다. 이러한 모호함에 범주를 만들고 유형화하여 이름붙이기를 하는 일련의 작업은 특정 시기를 다루더라도 언제나 현재 시점의 학술장의 영향력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므로, 현재는 참조로서, 아니면 출발점으로서 특정 시간대의 분석에 항상 배태되어 있다.

1970년대는 68혁명 이후 ‘제 2의 물결’(the Second Wave)이라고 일컬어지는 지식 구조장의 핵심 변동기로서 지식에 내장된 가부장성에 도전하며 이론의 급진적 정치화를 통해 페미니즘 이론의 축적이 이루어진 시기였으며 한국과 서구가 ‘여성학’을 대학제도의 하나의 범주로서 정초하려던 시대였다. 이 논문은 한국에서 여성학이라는 신생 학문이 제도화되기 이전, 그 준비 시기인 1970년대 중후반, 이 학문의 정체성을 구축하기 위한, 그리고 이 학문의 존재의 한 이유이기도 한 여성주체성의 구성과 한국여성문제의 극복이라는 문제를 위해 어떠한 집합적/개인적 학술실천 작업들이 진행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서구 페미니즘 이론의 번역이 어떠한 관점과 방식으로 수행되었는지, 이를 당대의 세계사적 맥락과 교차시켜 살펴보려 한다.

이 글이 다루려는 1970년대의 여성학 전사기(前史期)의 핵심 텍스트는 세 권의 ‘선집’이다. 전 10권의 ‘크리스찬 아카데미’ 총서 중 제 7권으로 묶여 나온 『한국여성문화』(1975년)와 이효재가 엮은 『여성해방의 이론과 현실』(1979년) 및 이화여대 여성학연구소의 『여성사회철학』(1979년)이다. 선집의 연구논문 저자와 번역자들은 제도 대학의 교수 및 대학원생들

이었으며, 위의 세 권의 작업 모두에 참여한 사람은 이효재가 유일했다.

이 논문이 제기하려는 물음은 다음과 같다. 제도와 담론이 중층적으로 얽혀있던 박정희 개발독재 시대, 한국의 현실을 파악하고 그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동원한 여러 학술 실천들 중에서 행위자로서 여성연구문제 연구자들이 번역 작업을 통해 어떠한 생산 효과를 도모했는가? 그 결과 1970년대는 어떠한 학술사적 의미와 역사성을 획득하게 되었는가? 한국 여성학 제도화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했던 1세대 구성자이기도 한 그들의 초기 작업이 차후 어떠한 제도적, 이론적 경로의존성을 낳았는가? 여성학 지식의 ‘(탈)식민지성’을 둘러싼 문제제기에서 당대 여성학 제도화의 초기 구성자들은 어떻게 응답했는가의 문제이다.

2. 서구 페미니즘 이론의 수용과 한국여성문제

2.1. 크리스찬 아카데미(와/의) 『여성문화의 도전』

한국 크리스찬 아카데미의 여성교육과 여성문제에 대한 관심은 1965년 설립초기부터 일관되었다. 아카데미의 발족, 즉, 초기 단계부터 이는 운동의 중요한 이슈로 다루어졌으며, 주로 ‘협의회’의 형태로서 여성 의제가 구성되고 행사가 조직화되는 방식을 아카데미는 취하였다. 1965년 5월 28일과 29일 양일에 걸쳐 ‘한국 근대화와 여성의 역할’ 주제로 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초청 강사나 참여 기관들, 참여자의 전공들도 망라하려 하였다. 이와 같은 흐름은 1969년의 여성자원의 개발, 1971년 모자복지사업 문제, 1972년의 여성고등교육문제, 1973년의 현행 가족법개정문제 등의 사업 수행과 더불어 무엇보다 1973년부터 수원 사회교육원에서 실시했던 여성사회교육으로 이어졌다.²⁾

2) 김영선, 「1970년대 한국여성학 학술운동의 계보와 장소성」, 『현상과 인식』, 통권 40권 1호, 2015.

1968년 자체 프로그램을 대화모임과 연구조사, 교육훈련의 3대 기축을 중심으로 재구성한 크리스찬 아카데미는 타 대학연구소나 학술연구소와 다르게 아카데미 운동이 목표로 하는 새로운 사회건설에 대한 구체적 대안 제시를 자신의 핵심적 과제로 삼았으며, 정기적인 연구발표와 사회조사, 사례연구 등의 방법을 통해 각 분야별 핵심 전문가들을 초대해 실천 가능한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³⁾ 이러한 협업적 토론문화에 바탕을 둔 크리스찬 아카데미의 대화 모임에서 발표된 원고들을 묶은 결과물이 아카데미 총서 시리즈로서 1975년 총 10권으로 출판되었다.

위 총서 제 7권 『여성문화의 도전』은 크리스찬 아카데미가 여성문제를 독립적 주제로 모아 묶어 펴낸 책이다. 첫 페이지의 강원룡의 권두언에서 이 책을 편집하는 데 있어 ‘한국여성단체협의회’를 비롯해 ‘대한가족협회’ 및 기타 기관의 협조를 받았음을 밝혔다.⁴⁾ 이 책의 구성은 제 1부 세계여성의 해와 한국여성, 제 2부 한국여성의 현주소, 제 3부 이십세기 성의 사회학, 제 4부 현행가족법 시비, 제 5부 세계의 여성들로 주제를 각각 나누어 총 18명의 필진이 집필과 번역 작업에 참여했다.

성의 사회학 영역에서의 핵심 주제인 ‘성차’에 대한 이슈와 여성의 심리, 성역할 등을 다룬 네 편의 서구 논문이 함께 묶였으며, 제 4부에 번역되어 소개된 여성은 프랑스와즈 지루(프랑스 여성담당장관), 캐더린 그레이엄(워싱턴 포스트 사장), 골다 메이어, 인디라 간디, 글로리아 스타이넴(여성운동가/저널리스트)이었다. 책의 마지막 페이지에서는 위 여성들의 타이틀에 대해서 소개했다. 이 책은 선집(anthology)으로서 한국인 저자

3) 크리스찬 아카데미 편, 『한국아카데미 총서 10: 대화의 역사』, 삼성출판사, 1975, 175쪽.

4) 1959년 12월 26일 한국여성단체협의회(이하 ‘여협’) 창립 당시의 핵심 조직 인물은 이화여대 총장, 김활란이었다. 크리스찬 아카데미에서 여성문제를 ‘문제화’하는 일련의 구성 과정에서 1960년대의 경우, ‘여협’ 제 1대 회장이었던 김활란이 그 연결고리의 역할을 했으며, 그 이후 이화여대 총장을 역임했던 정의숙과 윤후정도 각각 크리스찬 아카데미에서 활동을 전개했다. 김영선, 『1960~70년대 여성운동의 국제화와 한국여성단체협의회의 활동』, 『현상과 인식』, 36권 4호, 통권 118호, 2012, 167쪽 참조.

들의 문제의식을 담은 연구와 번역을 동시에 묶은 형식을 취했는데 이와 같은 형식은 동시대의 이효재의 저서, 『여성해방이론과 현실』과 이화여대 여성연구소의 여성학연구위원회가 엮은 『여성학신론』에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여성문화의 도전』의 제 3부 ‘이십세기 성의 사회학’ 에는 크리스찬 아카데미 대화 모임에서 발표된 한국 남성 지식인들의 발표문 3편과 안정숙 강인숙, 그리고 번역물이 총 네 편 실렸다. 목차는 아래와 같다.

새로운 대결, 현대의 성윤리(박형규)
 한국적 성 노이로제(한동세)
 성과 예술의 윤리(이근삼)
 여성선언 칠장(七章)(안정숙)
 반 통념시대 (강인숙)
 섹스나 인간이냐(수잔 리돈)
 불임 및 수태조절법규에 대한 태도(리이지 포어티어)
 여성과 그 신체적 운동(자넷 존스/캐럴 맥엘도우니)
 독신과 결혼을 통해 본 여성의 인간관계(낸시 프레스 호올리)
 자료·세계 섹시즘 대회 보고서

박형규 목사를 비롯한 한동세와 이근삼 등 세 명의 남성 지식인이 당대의 성혁명과 더불어 생성되고 있던 새로운 성의식과 태도의 변화를 읽어내는 방식은 각각 기독교 종교윤리와 성의학과 킨제이보고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에 기반하고 있으나, 위에 번역되어 수록된 네 편의 논문은 이를 페미니스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부연하자면, 남녀의 성차가 어떻게 사회구조적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이는 가부장제 질서의 유지와 성차별의 재생산에 어떻게 연결되느냐는 문제의 유무이다. 수잔 리돈의 글, ‘섹스나 人間이냐’ 는 “남성 중심의 미국 문화는 그 기본질서의 계속 에 보다 큰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성숭배의 신화는 아직 손대지

도 않은 채 있다”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그 본능과 신화성의 토대를 비판하는 방법으로 채택한 논리는 바로 여성의 성을 둘러싼 이중규범의 해체이다.⁵⁾ 여기에 더하여 생물학적 결정론에 기반한 남성다움과 여성다움 즉, 남자에게 “지성과 힘과 능력이 있어야 하며, 여자에게는 무지와 순종이 미덕이고, 가사일을 돌보며 아이를 보살피는 것이 주어진 일”이라는 성별 분업을 둘러싼 이데올로기가 생물학적 “기질로부터 사회적 성분인 역할과 정치학적 성분인 지위”를 낳는다고 보고 이를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다.⁶⁾

사실 섹슈얼리티 연구는 1990년대 (한국) 여성학이 기존 남성중심의 지식에 문제제기하면서 새로이 그 학술 영토를 재구성해낸 핵심 영역이자 여성 경험의 차이를 드러낸 여성학의 초기 독자적 주제 영역이기도 하다. 위의 『여성문화의 도전』에서 번역된 성(性) 개념에는 사회적·역사적 구성물로서의 젠더, 그리고 여성성과 남성성의 위계 및 차별화된 지위를 포함한 사회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로서의 섹슈얼리티, 생물학적 본질론에 기반한 섹스라는 세 개의 개념들이 모두 ‘성’이라는 단어에 서로 중층적으로 얹혀 있다. ‘성’ 개념이 위의 개념들로 각각 분화해나가고 그 개념들을 매개로 또는 교차하여 한국 여성문제를 다루는 새로운 이론적·실천적 단계로의 전화는 1980년대 제도 여성학이 구성되면서 본격화된다.

2.2. 이효재(와/의) 『여성해방의 이론과 현실』

이효재의 『여성해방의 이론과 현실』은 1979년 창작과 비평사에서 출간되었다. 계간 『창작과 비평』이 여성문제에 대해서 다루기 시작한 시점은 1970년대 중후반이다. 1977년 여름 통권 44호에 권양자가 ‘여성의 인간화’라는 관점에서 시몬느 드 보부아르의 『위기의 여자』에 대한 서평을

5) 위의 책, 242쪽.

6) 위의 책, 246쪽.

실었으며, 1978년 겨울호 통권 제 50호에도 이효재와 김행자의 저서에 대한 서평을 다루었다. 엮은이, 이효재는 『여성해방의 이론과 현실』의 출간 목적에 대하여 머리말에 한국여성운동의 방향을 국제적 시야에서 조명해보아야 할 때라는 점과 더불어 이러한 시대적 요청을 느껴 창비사가 출판을 결정하고 자신에게 이를 엮어달라는 제의를 해왔다고 썼다.⁷⁾

총 3부로 구성된 이 책은 크리스찬 아카데미의 『여성문화의 도전』과 유사하게 번역논문과 한국저자들의 한국 여성문제를 다룬 연구물들이 함께 수록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 책의 번역자 및 연구 필진은 이효재와 그의 이화여대 사회학과 제자 그룹이다. 책의 구성은 1부는 서양-여성해방운동의 배경과 이념(6편), 제 2부는 제삼세계와 여성문제(6편), 제 3부는 한국여성운동의 과거와 현재(5편)로서 총 17편의 글 중에서 한국 저자의 글은 모두 6편이다. 이론과 현실(theory and reality)로 이루어진 제목처럼 1부는 이론을, 2부와 3부는 각각 제 3세계의 국가별 현실에 기반한 서구에서 출간된 여성문제연구물들, 그리고 3부는 한국의 여성문제를 ‘한국여성운동’ ‘여성운동과 법’ ‘오늘의 농촌여성’ ‘성과 노동’ ‘분단시대의 여성문제’ 등을 다루었다.

이효재는 국내에 들어와 있는 문헌들의 범위 내에서 번역 텍스트를 골랐다면 서구 여성운동을 다루는 데 있어 자신이 채택한 관점은 특히 여성운동의 역사를 (개괄적으로) 소개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념과 이론의 중요한 발전을 나타내는 글들을 소개하려고 했으며, 이를 위하여 1970년대 생산된 텍스트로만 한정했다고 머리말에 썼다.

이 책에 유일하게 두 장에 걸쳐 번역된 페미니즘 이론가는 줄리엣 미첼이다. Juliet Mitchell, *Women's Estate*(N.Y.: Vintage Books, 1971)

7) 이효재는 『여성해방의 이론과 현실』의 머리말을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끝맺었다. “이 책에 실린 글들이 모두 여성들에 의하여 번역되고 집필된 것을 특별히 의의있게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 여성운동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입장에서 볼 때 남성들의 파트너쉽이 절실히 요청되는데 이 기회에 아낌없는 협조를 제공해주신 창비사 동지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한다.”

의 4장과 5장이 번역되어 실렸다. 줄리엣 미첼을 번역하여 실은 이유에 대하여 이효재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여성문제의 역사에서 사회주의 이론의 대두는 아무튼 하나의 큰 매듭을 짓는 사건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에 그 후의 사회주의 이론 또는 운동의 발전과정에서 여성해방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초기 선구자들의 이론을 연구해볼 필요는 새삼스러운 것이나, 여러 가지 현실적 제약을 감안해서 원전을 직접 소개하기보다는 이 문제에 관한 영국의 한 여성운동가의 글로써 대신하기로 한다.⁸⁾

이 짧은 소개의 글에서 드러난 이효재가 생각한 ‘현실적 제약’이라는 부분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할 듯하다. 사회주의 이론에 대한 저자의 직접적 소개가 당시의 학술장과 번역 토양에서 어려웠다는 점, 그리고 아직 이효재가 제기한 상호 이론들에서의 서구의 이론적 심화가 덜 된 상태였다는 점일 수도 있다. 제 3세계 국가들에 대한 그리고 탈식민의 역사 속에서 민족해방운동과 여성운동의 교차나 여성들의 의식변화, 그리고 신생독립국가들의 사회주의 체제건설 등에 대한 관심에 바탕하여 구성된 제 2부의 글들은 당시 이효재의 문제의식이 어떻게 진화되고 변화되었는지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이다. 또한, 미첼의 책에 소개된 사회주의권의 여성해방론을 우회하여 사회주의와 여성문제의 접속 부면을 살펴본 것이 아닐까 추측해 볼 수 있겠다.

이 책의 2부에 ‘멕시코선언’ 전문이 수록된 것이 흥미롭다. 1975년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세계여성의 해’ 행사에 참여한 110여개 회원국 중 제 3세계를 구성하는 77개국 대표들이 소련을 중심한 공산권이나 자유민주주의의 입장과도 다른 그들의 역사적 특수성에 입각한 선언문을 독자적으로 발표했는데 그 문건이 ‘멕시코선언’⁹⁾이다. 이효재의 제자이자 당시

8) 위의 책, 42쪽.

9) 위의 책에 실린 ‘멕시코선언’은 “Declaration of Mexico on the Equality of

이화여대 사회학과 대학원생이었던 신혜수가 번역한 이 선언문에는 발전과 평화 이슈에 대한 여성들의 공헌 및 여성의 평등에 있어 제 3세계 여성들의 입장이 담겨 있다.

전세계 여성들은 그들 사이에 어떤 차이가 존재하든지 간에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거나 받아 왔다는 뼈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에 대해 그들의 인식이 증가함에 따라, 식민주의·신식민주의·시온주의·인종차별·민족격리 정책'등의 밑에서 자행되는 것과 같은 어떤 형태의 억압에 대항하는 투쟁에서도 그들은 자연적인 동맹세력이 되며, 그럼으로써 오늘의 세계에서 경제적·사회적 변화를 위한 거대한 잠재 혁명세력을 구성한다는 것을 인식(...)10)

이효재는 서구이론과 서구여성의 경험을 어떻게 우리의 현실과 연결시킬 것이냐는 핵심 문제를 다루는 데에 있어, “제삼세계권에 속하는 여성운동의 이념과 성격이 서구 여성운동에서 자극을 받았고 그 사상의 영향을 입었음”을 인정하면서, 그러나 그들의 여성문제에 대한 주체적 의식은 백인들의 인종주의와 식민지 정책에 대항하는 흑인해방이나 민족해방운동에 여성들이 참여하여 투쟁하는 과정에서 발전하는 것이라는 관점을 지녔다. 그리고 이것을 서구 여성주의 입장과는 구별되는 특이성이라고 스스로 밝힌 바 있다.11)

위와 같이 여성문제의 진화를 서구이론과 한국적 현실로 구분하지 않고, 사실 제 3세계국가의 여성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이효재의 인

Women and Their Contribution to Development and Peace”(1975)의 번역본이다.

10) 번역에 참가한 이들은 이미경, 지은희, 김행자, 이형량, 정자환, 이옥경, 서정미. 이효재 교수의 1970년대 제자들이었던 이들은 이효재의 해직 이후, 1984년 아현동에 사회과학 분야 출신 여성으로서 연구회의 성격을 특정하여 <여성한국사회연구회>를 조직하고 발의했다. 이효재 (구술), 이승희, 『이효재-한국여성학 여성운동의 선구』, 『역사비평』, 통권 26호, 1994, 252쪽.

11) 이효재, 앞의 책, 4쪽.

식민적 변화에는 1975년 세계여성대회의 참석과 더불어 당대 한국사회에서의 민족문제와 제3세계에 대한 관심과 연결되어 있다. 이효재는 민족통일을 이룩해야 하는 분단시대의 시대적 과제에 있어 여성운동이 기여해야 할 책임이 막강하며, 이의 극복에 여성운동이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에 관한 이론적·방법론적인 제안은 공동의 창안이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바 있다. 그리고 이것은 “세계 각국의 지성들의 사상과 이론을 연구하며 그들이 역사적 현실에서 투쟁한 경험을 참고로 삼아야” 할 것을 제시했다.

이 책에 엮은 여러 [서구] 이념과 이론들은 이것이 우리 현실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거나 전적으로 찬동하는 입장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적 역사현실과 민족의식 속에서 앞으로의 여성운동을 정립해나가야 한다. 다만 이것이 너무 특수한 성격으로 편협해지거나 인류보편적 역사의 흐름에 역행하지 않게 하는 데 참고되고 도움이 되길 바라는 입장에서이다¹²⁾

냉전체제와 분단 극복의 문제는 제3세계와 민족해방운동에의 여성의 참여에 대한 이효재의 깊은 관찰에서도 반복되어 나타난다. 그의 논리에 따르면 식민시대와 분단시대로 이어지는 민족수난사 속에서 여성의 억압이 강화되었고, 민주주의의 실현을 통한 주체적 여성의 삶이란 분단민족사의 극복과 분리 불가능한 것으로 수렴된다. 그에게 이론과 경험, 실천과 운동의 문제는 분리할 수 없는 것으로서 이미 1970년대 사유에 발화되어 있었다. 분단문제 및 제3세계 문학에 대해서 담론화했던 『창작과 비평』은 1970년대 중, 후반부터 이효재의 저서에 대한 서평을 지면에 실었으며, 여성문제 특집 좌담회를 거치면서 한국의 여성문제에 접근하기 시작한 바 있다.¹³⁾ 또, 이효재가 한국 여성문제의 극복의 탐색에서 민족문

12) 위의 책, 9쪽.

13) 김영선, 「1970년대 한국여성학 학술운동의 계보와 장소성」, 『현상과 인식』, 2015.

제와 더불어 분단극복의 문제의식을 가지게 된 배경에는 ‘창비’와의 접촉이 중요한 기제로 자리잡았던 것으로 보인다.

2.3. 이화여대 여성연구소(와/의) 『여성사회철학』

1970년대의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여성의 잠재력 개발을 통해 여성주체성을 만들어가는 것은 이화여대 여성교육의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1976년 3월 처음으로 ‘여성 능력 개발을 위한 여성학과정 설치의 제안’이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가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이 발간하는 『논총』에 게재되었는데 여기에 <여성학>을 대학의 정식 교과목으로 개설해야 한다는 건의를 담았다. 1976년 한국여성연구소(이하, 여성연구소)의 ‘여성과 발전 연구사업’은 교과과정 모형개발과 도서 및 정보센터 설치, 교재개발, 여성학강좌개설, 농촌과 도시, 저소득 여성의 지도력 개발을 위한 교육 실시를 프로젝트의 목표로 삼았다. 원래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이화여대의 교내 기관은 한국문화연구원이었으나 1977년 3월 여성연구소 창설 이후부터 이곳으로 사업이 이양되어서 종료되었다. 위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조직된 당시 여성학연구위원회의 기획위원은 김영정, 윤순영, 이효재, 서광선이었다.¹⁴⁾

위 연구위원회는 다양한 전공 분야의 교수들이 참여하는 공동 작업을 통해서 여성학이라는 신생학문이 당면한 문제를 풀어나가고자 했으며, 이 연구모임에서 발표된 논문을 모은 선집을 발간하여 여성학 교재로 사용하기로 결의했다. 1977년부터 <여성학> 강좌를 정규 교과과정으로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이 부문에 관한 학문적 밀받침으로서 국내 학자들의 논문들을 모아『여성학신론』을 간행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여성학』을 간행한 바 있다.

121쪽.

14)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한국여성연구원 30년 1977-2007』,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2008, 16~21쪽.

『여성학신론』은 공판인쇄로 1977년 8월에 첫 출간되었으며 1977년 가을 학기부터 개설된 여성학 교양 선택과목 강좌의 교재를 위해 기획된 것이었다. 미국국무성 해외원조부(USAID)의 기금을 통해 재정적 보조를 지원받았음을 첫 페이지에 표기한 위 책은 이화여대의 교수진이 각각 집필한 9편의 논문과 11편의 외국 논문의 번역문을 실어 총 409쪽 분량이었다. 1978년 2월에 한국 여성의 역사, 종교, 문학, 가정, 농촌, 법률 등의 관련 논문들을 첨가한 약 100페이지의 개정판, 그리고 다시 1977년 8월에 한국여성근로자에 관한 논문 1편이 더 첨가되어서 1978년 8월에 615쪽의 재개정판이 나왔으며 참여한 교내 집필자들의 수는 16명, 실린 논문 수는 번역논문을 포함하여 총 28편이었다. 즉, 위의 책은 매 학기 내용을 증보한 셈이다. 1977년판과 1978년판에 당시 여성연구소 소장이었던 김영정이 머리말을 썼는데 1977년판에는 이 책의 목적을 “대학의 교양 과정의 교재로서 여성에 관한 포괄적인 이론을 개관할 수 있도록 엮은 것”이라고 밝혔으며, 공판인쇄로 출간하게 된 것에 대해서 “극히 짧은 기일 안에 간행해야 하는 제약과 이에 따른 미흡한 점을 계속 보완하기 위하여”라고 설명하였다. 『여성학신론』 머리말에 여성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에 대한 탐색의 이유가 다음과 같이 정리되어 있다.

여성에 관한 연구는 70년대 초부터 미국을 비롯한 세계의 여러 대학에서 전공과목 혹은 특수과정으로 채택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단순히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따르려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잠재능력을 계발, 활용해야 할 현대 사회의 요청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오랫동안 문화적 제약 속에 매몰되어 온 한국여성의 심층 의식을 깨우쳐 한 인간으로서 사회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하도록 하는 일은 우리의 시급한 과제이다¹⁵⁾

615쪽 분량의 『여성학신론』이 1979년에 여성학 교재와 번역본만을 따

15) 이화여대 여성연구소 여성학 연구위원회, 『머리말』, 『여성학신론』, 1979년, 1쪽.

로 묶은 『여성사회철학』으로 각각 분할하여 재개정판으로 출간되었다. 2년간의 <여성학> 교양강좌의 수행 경험과 더불어 자료를 재정리하고 보완하여 두 권의 책으로 내놓게 된 맥락에 대하여, 여성연구소 소장 김영정은 “여성문제의 체계적 이론에 대한 학계와 일반사회의 요청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밝히며, 이미 1978년 8월의 『여성학신론』 1판에서 밝혔던 대로, “여성의 의식을 깨우치는 것”과 “잠재능력의 개발”이라는 여성교육과 의식화의 관계성 및 참여하는 여성주체의 생산이 당대 한국사회의 요청임을 강조했다.

분책되어 출간된 『여성학』에 윤후정의 「여성문제의 본질과 방향」이 실렸으며, 『여성사회철학』은 장필화가 번역한 4편의 논문이 새로이 삽입되어 여성학 이론의 고전부터 동시대 논문까지 총 16편의 외국 논문으로 구성되었다.¹⁶⁾ 『여성사회철학』은 총 III부로 제 I부는 서구여성운동의 역사와 이념, 제 II부는 여성의 생리와 심리, 제 III부는 여성의 문화 사회구조로 구성되었다. 1부, 2부, 3부를 관통하는 주제는 각각 여성해방에 대한 사상적 기초, 생리, 그리고 사회적 역사적 구성물로서의 가부장제를 구축하고 재생산하는 다양한 영역의 메커니즘에 대한 분석, 페미니즘의 이론 등이었다. 각 장 (총 16편)의 글은 첫 페이지의 각주에 저자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출처를 밝혔으며, 글의 끝에 번역자의 이름만 실었다. 16편의 번역자는 모두 이화여대 소속으로써 장필화(5편), 여성학과 당시 조교였던 이미경, 이옥경(3편), 정자환(2편) 외에 이화여대 사회학과 조형교수, 정치학과 김행자교수, 교육학과 정세화교수, 가정학과 김숙희교수, 기독교학과 서광선교수 등이 각각 맡아서 번역을 했고, 이에 대한 최종 원고 정리와 교정은 이종선, 장필화, 박진숙이 맡았다.

위에 실린 번역문 중에서 마르쿠제의 논문은 1977년 서광선이 “Marxism and Feminism”, Women's Studies, Vol 2(1974), 279~288쪽의 논문을

16) 『여성사회철학』의 위 머리말에서 김영정은 “여성학 이론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문헌들을 통하여 여성문제의 본질과 방향이 제시되고 아울러 더욱 활발한 연구의 길잡이가 되기”를 바란다 고 썼다.

번역한 것인데, 동일한 논문이 유효정, 전동덕 역, 『새로운 사회를 위한 여성해방운동』(서울: 광민사, 1980)에도 실렸다. 1974년 스탠포드 대학에서의 강연 원고를 정리한 마르쿠제의 위의 논문이 각각 다른 역자에 의해 번역되어 1980년도 같은 해에 나온 책에 나란히 실렸다. 이는 사회주의 이론가 마르쿠제에 대한 한국 연구자들의 당대적 관심의 진폭을 엿볼 수 있는 한 측면이기도 하다.

여성학 교재로서 출발한, 그리고 교내 연구진의 연구물과 번역 논문을 같이 묶어 각각 간행하게 된 데에는 이화여대 출판부의 이화문고의 간행이 중요한 변환점이 된 것으로 보인다. 여성학은 이화여대출판부에서 이화문고 2로, 『여성사회철학』은 이화문고 5로 각각 간행되었다. 대학출판부의 경우 편집위원회가 신청도서의 출판을 승인하는 권한을 가진다. 1979년 이화문고 편집위원회 일동의 명의로 이화문고의 간행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출판부 30주년을 기념하면서 간행하는 책들이다. 한국전쟁의 혼란 속에서도 대학의 중심에 출판부를 두어 대학인의 학문적 대화를 불러일으키게 한 것은 길고 먼 앞날을 내다보는 역사의식의 표현이었다(…) 1980년대를 살아야 하는 우리 세대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다양하고 급격한 변화와 전환의 소용돌이에 직면하게 될 것 같다(…) 80년대를 살아야 하고 만들어 나가야 하는 오늘의 지성들이, 앞날을 위하여 새 세대를 위하여 읽어야 할 책들을 지난 세대의 서가에서 골라내어 다시금 펴 보자는 것이다¹⁷⁾

교육과 연구라는 대학의 위치에서 대학교재와 학술교재를 주요 생산의 목적으로 했던 대학출판부에서의 출판은 여성학이 대학 내에서 유통되는 중요한 통로의 역할을 했다. 즉, 대학 내부에서의 페미니즘 이론의 번역

17) 이화문고 편집위원은 당시 서광선(위원장), 김세영, 김영기, 노분조, 신옥희, 유종호, 정세화, 조형, 진덕수였다. 이 중에서 여성학과 여성학신론에 참여한 사람은 서광선, 정세화, 조형 등 3인이었다.

은 실제 여성학 교양과목 교육을 위한 제도로써 실행되었고, 서구의 여성 문제에 대한 해결책과 함께 교내 연구진의 공동 토론과 연구의 결과물이 나란히 묶여 교재로 출간되었다는 것, 그리고 공판인쇄 등으로 시작된 것이 차후 이대 출판부의 이화문고의 구성 시 출판되어 교재와 학술이론서로서 유통되었다는 점이 중요한 특징일 것이며, 이러한 이화여대의 여성학 교재출판은 1980년대 연세대, 동국대 등 타대학의 교양교재 발간의 한 모형으로 작동했다.

3. '1970년대성'과 그 이후

여성학이 학위 제도 학문으로서 한국 대학에 만들어지기 이전 시기, 교양으로서 대학 교육과 여성학 연구로 정착하는 과정에서 대학 연구소에 토대를 둔 연구위원회와 대학 출판부의 교양/학술문고 등의 역할을 살펴 보면서, 동시에 한국의 초기 여성(주의)연구자들이 당대의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통합적 실천의 방편으로서 서구 페미니즘 이론을 어떠한 맥락에서 선택, 번역했는지 그 그룹들의 교차와 길향을 '선집'에 담긴 텍스트들의 배치에 초점을 맞춰 들여다보았다.

1970년대라는 시간대는 서구 페미니즘 운동과 지식생산에 있어 제 2차 여성해방운동기에 해당한다. 19세기 중엽 노예제 폐지운동에 참가하여 여기에서의 소외경험으로부터 스스로 해방에 나섰던 여성들에 의해서 조직된 제 1차 여성해방운동과는 구별하여 제 2차 여성해방운동이라고 명명된 19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에 걸친 여성해방운동은 성차별주의의 제도화가 모든 사회제도와 조직에 편재되어 있으며 이것은 상호보강적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사회적 신념 속에 내재된 남성 우위성과 여성 종속성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도전을 그들의 운동 기획 안에 포괄하고 있다. 즉 차별의 중층구조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제도영역을 변혁하는 것뿐만 아니라 남녀 차별을 당연시하는 신념이나 가치관에 내재한

본질주의(essentialism)를 극복하는 것이 당대의 핵심적 지향이었다.

여성학이라는 학문이 미국에서 제도화되면서 동시에 페미니즘 이론의 분화와 축적이 논쟁들을 매개해 이루어지던 1960년대와 70년대의 페미니스트들은 남성과 다른 여성의 경험을 반영한 이론의 구성을 주창했으며, 케이트 밀레트(Kate Millet)의 『성의 사회학』, 쉘라미스 파이어스톤(Shulamith Firestone)의 『성의 변증법』, 줄리엣 미첼(Juliet Mitchell)의 『여성의 지위』 등이 이 때 출간되었다.

1970년대와 1980년대 서구 페미니즘의 이론과 한국에서의 여성주의 이론의 수용은 동시대성에서 번역되고 출간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론들을 수용하는 관점은 각각 크리스찬 아카데미 그룹들, 이효재, 그리고 이화여대 여성학 연구위원회가 스펙트럼 위에 겹치면서도 각각 다르게 위치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두 한국 여성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론을 선택했으며 서구 이론의 소개 목적 등을 선집 발간에 분명히 함으로써 서구의 경험에 기초한 이론들을 특수성과 보편성의 틀로써 재사유하려 하였다. 한국 여성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서, 먼저 그 연구자들이 속한, 그리고 주요하게 교류했던 대학 제도 안팎의 학술 그룹들의 정치사회적 지향과 더불어 연구자들이 훈련받았던 학문분과와 전공이 그 차이를 구성해낸 것이 아닐까 싶다.

이런 맥락에서 ‘1970년대성’이라는 우산과 같은 개념으로 여성학 제도화 전사기, 페미니즘 이론 번역과 수용의 특징을 거칠게나마 정리해보면, 첫째는 이화여대라는 제도적 장소성과 이를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가 주도적 행위자로서 작동했다는 점. 둘째, 한국 여성운동의 성과에 대한 강조 속에서, 즉 운동사적 관점과 연결시켜 서구 페미니즘 이론 번역을 선택하였다는 것. 셋째, 1975년 유엔 세계여성대회의 개최를 중요한 운동과 이론의 분기점으로 잡고 결집했다는 점이다. 넷째, 제 3세계라는 당대의 주요한 새로운 실천적 관점이 이효재를 통해 한국여성문제를 보는 새로운 방식으로서 접속되고 전개되었다는 것과 더불어 다섯째, 1980년대 이후 섹슈얼리티 연구라는 여성학이 구성해 낸 새로운 학문 영토가 위의

시기, 다양한 전공영역의 지식인들에 의해서 발언되면서 동시에 남성과 여성의 ‘성차’를 보는 새로운 해석틀이 번역 작업을 통해 제시되던 시기였다.

이화여대 여성연구소 및 크리스찬 아카데미라는 공통 장소이자 지식인 네트워크로 묶이는 1970년대 한국여성학 제도화의 초창기 기획자들은 한국 여성문제의 해결책을 각각 여성교육을 통한 여성의 잠재력 개발과 ‘여성학 제도화’라는 기획에서 찾았으며 그들의 페미니즘 수용은 서로 맞물려 있다. 1980년대 대학 제도 안팎의 움직임들은 분명 1970년대와는 다른 지층을 형성했다. 제도 밖 학술단체의 분화와 더불어 대학과 저널리스트가 아닌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이 담론의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했으며, 교실 밖의 지식을 새로운 실천과 번역의 도구로 삼았다는 점들은 본격적인 차이의 정치를 형성했다.¹⁸⁾

4. 지식의 탈식민지성과 번역/실천

서구이론의 번역은 항상 지식의 식민주의 논의와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다. 한국이 이론의 발신지나 생산지로서 기능하는 것에 대한 논의들은 여러 차례 다양한 방식으로 지식/권력 문제와 연결되어 되풀이되어 왔다. 한국사회학의 서구편향적 성향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한국사회의 ‘몰역사성’, ‘종속성’, ‘식민지성’ 등등의 개념과 어휘가 사용된 바 있으며,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론의 ‘현실적합성’, ‘이론의 토착화’, ‘주체적’ 사회학, ‘독창적’ 사회학의 정립 등의 대안적 개념들이 논의된 바 있다. “연구자/학자의 역할정체성, 연구집단과 대중의 유리정도, 상호 감

18) 대학 밖의 여성들의 공간은 ‘아현연구실’(1980년), ‘여성한국사회연구회’(1984), ‘또 하나의 문화’(1985), ‘여성사연구회’(1987), ‘한국여성연구회’(1989)로 이어지며, 위의 ‘또 하나의 문화’와 ‘여성사연구회’는 각각 『또 하나의 문화』 동인지와 『여성』(1985~1989) 무크지를 출간했다.

시하는 논쟁집단의 유무, 지적 생산물 시장의 구조와 연구에 대한 보상체계, 연구자 집단 내의 계층화와 사회통제”라는 측면에서 다각도로 지식과 규율권력의 문제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¹⁹⁾

여성학 내부에서의 탈식민지성 논의의 기점을 어디로, 또 어느 시기로 잡느냐 하는 문제에 대하여 1988년 제 1회 학단협 창립기념 학술회의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제출되어 있지만 이것은 보다 더 면밀하고 정밀한 검토가 따로 요청된다.²⁰⁾ 그러나 이러한 대립적이고 정치적인 담론이 나오게 된 배경은 1980년대의 한국 지식장의 역동적 변화와 맞물려 있으며 탈식민주의 논의의 본격화는 당시의 시대적 맥락 속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²¹⁾

한국 페미니즘과 여성학의 탈식민지성에 대한 문제의식은 이후 지적 식민성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미국 헤게모니의 종속성, 1980년대 문제의식의 단절, 이론과 실천의 괴리, 각론 차원의 작업에 치중함으로써 총체적 관점에서 문제를 인식하는 능력을 상실함, 한국의 특수 경험이 서구가 발견하지 못한 이론의 틀을 구성해낼 수 있는 창발성의 조건이 뒤편에도 불구하고 비주체적 자세로 여성학 연구를 해 온 것 등이 그 이유라고 분석된 바 있다.²²⁾ 한국여성학이 서구페미니즘 이론의 대행자라는 비판과 더불어 한국여성학의 (탈)식민 논란과 관련하여 나오는 질문은 바로 서구 여성들의 역사적 경험에서 비롯된 이론이 한국여성학 또는 여성문제의 해석에 있어 어떻게 기능할 수 있는가라는 원천적인 연구 문제의식의 마비라는 오랜 문제, 즉 성찰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19) 진승권, 「총론」, 『한국사회학 50년』, 해안, 2004, 21쪽.

20) 김정희, 『나의 페미니즘 레시피』, 한울, 2015, 242~3쪽.

21) 1988년 학술단체협의회 창립 학술대회의 공식 참여 연구 집단은 ‘여성한국사회연구회’와 ‘여성사연구회’의 두 단체였다.

22) 강남식, 오장미경, 「한국여성학의 발달과 서구(미국)페미니즘」, 『우리 한국 속의 미국: 미국적 학문 패러다임 이식에 대한 비판적 성찰』, 한울 아카데미, 2002, 288~321쪽.

이에 대하여 한국여성학의 1세대 연구자들은 위의 낙인들이 한국여성학에 켜워지는 것에 대한 대항 담론을 생산한 바 있다. 이효재는 “유엔이 선포한 세계 여성의 해와 일치하는 데서 해외여성운동의 일방적 영향이나 선구적인 구미 여성학의 단순한 수용으로 간과”되어버릴 위험을 지적하면서 “1970년대는 우리 여성사에서 여성학에 대한 요구와 함께 그 씨앗이 싹틀 수 있었던 사회적 토양이 여성운동에 의해 마련되었던 시기”라고 진단했다. 또한 가족법 개정운동과 70년대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원한 여성단체들의 연대가 여성문제연구와 여성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이것의 뿌리는 19세기 말 한국 여성들의 구국운동과 근대 교육운동과 닿아있음을 강조했다.²³⁾ 즉 한 세기에 걸친 운동사적 토대가 바로 여성연구와 여성학의 핵심 정체라고 본 것이다.

한국여성학 제도화 시점은 1980년대 초반이다. 여성학이라는 학문의 범주를 구성해나가는 과정이 경합의 과정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성학 박사학위를 받지 않은 교수들이 모여 여성학이라는 학제연구의 석/박사를 만들어내는 해체이자 생성의 동시적 과정이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이었다. 분과학문에서 학제연구로 가는 길은 모호했고, 그 경계는 지속적으로 미끄러지는 작업이기도 했다. 대학제도 밖의 연구공간 및 대안 매체를 통해서 페미니즘의 번역물들이 활발히 유통되던 1990년대는 주체적 학문 행위에 대한 담론투쟁이 활발했던 시기이기도 하다.

특정 시기를 다룬 학술사 쓰기에서 번역이라는 ‘주제’는 결락시킬 수 없는 성찰적 주제이며, 이 문제는 지식의 탈식민지성과 실천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닿아 있다. 1970년대와 1980년대 그리고 그 이후 1990년대의 시대적 맥락에서 제도 연구자의 번역 행위가 실천과 연동되거나 괴리되는 이유는 지식장의 구조변동이라는 거시적 측면과 더불어 개별 연구자들의 내면 세계에서 작동하는 어떤 욕망이나 전략 등의 심층적 기제까지 들어가 살펴봐야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서구이론의 수입이나 수용이

23) 이효재, 「기조발표: 한국여성과 여성운동」, 『한국여성학』, 10, 1994, 9쪽.

라는 문제 자체가 성찰되는 방식들이 2000년대 변화했는가? 변화했다면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는 또 다른 성찰의 문제로 현재의 중층적 제도규율과의 문제와 연동시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또 하나의 핵심적인 주제일 것이다.

참고문헌

- 강남식, 오장미경, 「우리 한국 속의 미국: 미국적 학문 패러다임 이식에 대한 비판적 성찰」, 『한국여성학의 발달과 서구(미국)페미니즘』, 한울 아카데미, 2002, 288~321쪽.
- 김영선, 1960~70년대 여성운동의 국제화와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현상과 인식』, 36권 4호, 2012, 171~196쪽.
- 김영선, 1970년대 한국여성학 학술운동의 계보와 장소성, 『현상과인식』, 39권 1호, 2015, 113~137쪽.
- 김정희, 『나의 페미니즘 레시피』, 서해문집, 2015, 242~3쪽.
- 크리스찬 아카데미 편, 『한국아카데미 총서 10: 대화의 역사』, 삼성출판사, 1975, 175쪽.
- 크리스찬 아카데미 편, 『한국아카데미 총서 7: 여성문화의 도전』, 삼성출판사, 1975, 242~246쪽.
- 백낙청, 제삼세계와 민중문학, 『창작과 비평』, 14(3), 여름호, 1979, 43~79면.
- 서은주, 『권력과 학술장』, 해안, 2014, 7~11쪽.
- 이화여대 여성연구소 여성학 연구위원회, 『여성학신문』, 이화여자대학교, 1977, 3쪽.
- 이화여대 여성연구소 여성학 연구위원회, 『여성사회철학』, 이화여자대학교, 1979, 9~230쪽.
- 이화여대 여성연구소 여성학 연구위원회, 『여성학』, 이화여자대학교, 1980, 9~63쪽.

-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한국여성연구원 30년 1977-2007』,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2008, 16~21쪽.
- 이효재 (구술), 이승희, “이효재-한국여성학 여성운동의 선구”, 『역사비평』,
통권 26호, 1994, 237~257쪽.
- 이효재, 기조발표: 한국여성과 여성운동, 『한국여성학』 10, 1994, 7~17쪽.
- 이효재, 여성과 민족, 『여성과 사회』, 정우사, 1979, 44~53쪽.
- 이효재, 『여성해방의 이론과 현실』, 창작과 비평사, 1979, 338~349쪽.
- 진승권, 총론, 한국문화연구원 편, 『한국사회학 50년』, 혜안, 2004, 27쪽.

Abstract

Translation/praxis of 1970s Feminist Theory and Korean Women's Studies

Kim, Young-Sun

Understanding the configuration and dispatch of women's issues in Korea in the early stages of the institutionalization of Korean Women's Studies is a necessary process for undertaking a genealogical investigation of the Korean Women's Studies academic movement. This paper looks at whether the act of translation gave form and language to issues of intellectual production and women's issues, becoming a part of the Zeitgeist of the period, and also if the texts introduced in the period served as a foundation and resource for the construction of institutionalized Women's Studies as well as for divisions in the women's movement in the 1980s and 1990s.

The core texts chosen for this study are all 'anthologies'. The three books selected are *The Challenge of Women's Culture*(1975); *The Reality and the Theory of Women's Liberation*(1979) edited by Yi Hyojae; and *Women Society Philosophy*(1979) from Korea Women Institute at Ewha Womans University. By looking at the positionalities and fields of specialization of the co-writers and translators participating in the publication of the anthologies, this paper looks at how the early construction stage of Women's Studies, the stage that guided the development of Women's Studies as interdisciplinary research, was configured as a field, at the same

time ascertaining the realities of Korea during the age of Park Chung-hee's developmental dictatorial regime, in which system and discourse were intertwined, and parse the effects achieved by those researchers (agents) on women's issues, through analysis of their translation projects, one aspect of many academic praxis mobilized to overcome contradictions within those realities. What kind of academic-historical meanings and historicities were created as a result? What kind of institutional and theoretical dependencies were thenceforth created by these early projects by the first generation "constructors" who took a central role in the process of institutionalizing Korean Women's Studies? The paper will consider the problem of how these responded to 1980s criticism, in which generation and class intersected, with respect to the postcoloniality of Women's Studies knowledge.

Key words : Korean Women's Studies, Academic History, Translation Praxis, Feminism, Interdisciplinary Research, Knowledge Production, Postcolonial Intellectuals

■ 본 논문은 2016년 3월 12일에 접수되어 2016년 3월 20일부터 4월 4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16년 4월 14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